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특성과 연구동향

이 정 환* · 이 성 용**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을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1980년대말 이후 외국인 노동자 사회는 유입 인구의 급증, 불법체류자의 높은 비율, 개발도상국 출신 저숙련직 종사 젊은 남성층의 높은 비중,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성장 등의 변화를 겪으며 꾸준히 성장해왔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들도 이 같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과정의 특성들을 반영하면서 주제들이 다양해졌고 방법론도 세련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연구는 여전히 주제면에서 거시적 수준에 치중된 측면이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태와 현황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의 비중이 높은 문제점이 있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경험적이거나 양적인 자료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질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의 높은 비중, 표본의 대표성 결여, 언어소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핵심단어: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연구, 이주 특성, 주제, 방법론, 한국

I. 서론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지도 어느덧 20년에 가까워졌다. 더불어 이들의 수도 꾸준히 증가해 2005년 12월말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전체 한국인 취업자 수의 2%를 상회하는 50만여 명에 이르렀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역사도 길어지고 규모도 확대됨에 따라 이제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사회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덧붙여, 그간 순탄치 않은 이들의 이주 과정으로 인해 이들과 관련된 각종 사회문제들, 즉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와 같은 외국 인력의 도입 및 활

*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강남대학교 교양교수부 교수

용정책, 3D업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산업재해, 임금체불과 인종차별에 따른 인권문제, 노동조합 설립 문제, 불법 체류자, 외국인들간 혹은 한국인에 대한 범죄 문제 등등은 한국사회에서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한편, 2000년대 들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내국인의 생산직 기피성향, 국내의 급격한 출산을 저하와 노령화에 따른 국내 인력의 감소 추세와 같은 일련의 국내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이들의 인종도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과의 접촉은 보다 빈번히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직장에서는 물론 직장 밖의 많은 사회적 영역에서 사회적 관계가 보다 확대되고 복잡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영주권 또는 정주권, 시민권, 다인종다문화 사회, 탈민족주의 등에 관한 논란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과 파장을 주면서 학계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를 주제로 한 연구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며, 또 연구결과들도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존 연구들의 성과나 방향을 고찰해보거나 종합적으로 정리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아울러 2007년 들어 고용허가제에 의한 외국 인력 도입의 일원화,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제 실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및 외국인 일반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출입국 및 거주조건이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상황은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돌이켜 보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연구 주제나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하게 제시한다. 이 같은 시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외국인 노동자 연구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도약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정책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기존 국내 연구들에 대해 메타분석적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유형과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검토한다. 다음으로 기존 연구들을 연구의 핵심적인 요소인 주제와 방법론을 중심으로 논의한다¹⁾. 마지막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모색해보기로 한다.

1) 지금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들이 다양한 형태로 발간되어 왔으나 이 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를 제외하곤 주로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 게재 논문과 저서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기로 한다. 하지만 이 연구의 한계로서, 출간된 논문이나 저서 특히 보고서 중에는 이 연구가 포함하지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II.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특성

1.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자국민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나라였지만 1980년대 말부터는 상황이 바뀌어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 불가피한 조건을 맞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계속된 경제성장이었다. 지속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상승과 노동력 부족을 동시에 가져왔다. 아울러 1980년대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인력부족 현상은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해 더욱 심각해져 전 산업의 인력부족율이 1991년에 사상 최고치인 5.48%를 기록하였다. 또한 한국은 1988년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사증면제협정 체결, 무사증 입국의 허용, 입국심사 간편화 등 출입국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경제성장과 올림픽개최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은 아니라도 중진국의 수준은 된다는 사실을 세상에, 특히 저개발국가들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돈을 벌러 외국으로 나가려고 하는 저개발국가 사람들에게 한국을 새로운 이주 목적지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이 같은 사회적 조건과 환경 변화로 인해 먼저 문화가 비슷하고 말과 글이 통하는 조선족을 위시하여 해외 이주노동의 역사가 깊은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의 동남 및 남아시아인들이 1980년대말부터 대거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외국 인력의 도입이 합법화된 1992년말부터는 해외투자기업을 통해, 1993년말부터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등의 업종별 단체를 통해 외국 인력이 한 해에 많게는 2만명 이상 입국하였다. 또한 한국 경제가 나아지면서 돈을 벌기 위해 방문 및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1997년말의 금융위기로 1998년 한 때 14만 여명으로 줄어들기도 했으나, 이후 경제회복과 함께 다시 꾸준히 증가하여 1999년말 18만 여명, 2003년말 43만 여명, 2005년말 47만 여명에 이르게 되었다(<표 1> 참조).

외국인 노동자 수의 증가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다.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노동력부족, 특히 3D 업종의 인력난 심화와 임금 상승이 1990년대에도 계속되자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1992년 10월부터 산업연수생자격으로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산업연수생

<표 1> 외국인 노동자 수, 1991-2005

(단위: 명, %)

연도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합	
1991	599	(1.4)	41,877	(98.6)	42,476	(100.0)
1992	4945	(7.0)	65,528	(93.0)	70,473	(100.0)
1994	28,328	(37.0)	48,231	(63.0)	76,559	(100.0)
1997	69,052	(31.8)	148,048	(68.2)	217,100	(100.0)
1999	46,814	(25.7)	135,338	(74.3)	182,152	(100.0)
2001	102,672	(27.0)	255,206	(67.1)	380,169	(100.0)
2003	295,323	(68.1)	138,056	(31.9)	433,379	(100.0)
2005	287,534	(61.4)	180,792	(38.6)	468,326	(100.0)

주: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당해년도 12월 31일 기준.

자료: 법무부(해당년도).

제를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임금이 싼 인력을 도입하되 이들의 정주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노동자의 신분이 아닌 연수생으로 받아들였으며 또 이들의 법적인 체류기간을 6개월 연수(6개월 연장가능)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외국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1993년 12월에 이들의 체류기간을 1년 연수 및 1년 연장가능, 1996년 2월에 2년 연수 및 1년 연장가능으로 바꾸었다.

법적으로 연수생 자격이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왜곡된 신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자 정부는 1998년 4월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수 후 1년을 노동자로 일할 수 있게 하는 2년 연수 후 1년 고용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 자격을 공식적으로 수용하였다. 이후 2004년 8월에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 후 3년 동안 노동자의 신분으로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를 산업연수생제와 병행해서 실시하였고 2007년 1월부터는 산업연수생제를 폐지하고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해서 시행해오고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2004년 8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수는 약 1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송출국가도 6개국에서 10개국으로 늘어났으며 2007년에는 15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²⁾. 하지만 실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

2) 2007년 5월 현재 송출국가는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송출국가로 지정되었으나 현재 양해각서[MOU] 협상 중)이며, 추가될 5개국은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키르기스스탄이다.

자의 출신국가 수는 최소한 40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법무부, 2006).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중국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또 이들이 동포라는 점이 강조되면서 2000년대 들어 재외 한국인에 대한 출입국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2002년 12월에는 중국, 러시아 등의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 대한 취업우대 정책의 하나로 음식점, 간병인, 청소업 등 내국인의 기피가 심한 서비스업에 일정 기간 취업을 허용하는 취업관리제를 실시하였다. 2006년 1월에는 이들의 취업가능 분야에 제조업, 농축산업, 연근해어업을 추가하였다. 2007년 3월에는 취업관리제 대신에 방문취업제를 실시하여 이들의 한국취업 문호를 더욱 확대하였다. 방문취업제에서는 만 25세 이상의 중국 및 구소련지역 등의 거주지역 동포들이 국내 호적이나 친인척이 없어도 5년 유효, 1회 최장 3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들의 취업가능 업종도 32개에 이르러 재외동포들의 한국 취업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의 자유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불법체류자의 높은 비율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는 합법체류자보다 불법체류자의 수가 훨씬 더 많았다(<표 1> 참조). 2003년 8월에 고용허가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체류 기간 4년 미만의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면을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면서 합법체류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2005년말에는 전체 체류 외국인 노동자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같이 불법체류자의 비율이 높은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들의 일부, 특히 중국출신은 한국입국을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한다³⁾. 이러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들은 오랫동안 저축을 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또는 자신의 집을 팔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은 비용을 충당하고 또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 온 만큼 어느 정도의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한국에 체류하려는 경향이 있다.

3) 중국출신 중 특히 한국말을 할 줄 알고 또 한국에서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조선족은 한국 입국을 위해 서류나 여권위조와 같은 비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으며, 일반적으로 비합법적으로 입국을 알선하거나 수속 해주는 업체는 의뢰자에게 위협부담에 따른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표 2> 성별 외국인 노동자 수, 2005

(단위: 명, %)

		남	여	합
합법체류자	산업연수생	46,524 (81.1)	10,846 (18.9)	57,370 (100.0)
	고용허가자	161,067 (70.0)	69,097 (30.0)	230,164 (100.0)
불법체류자		120,194 (66.5)	60,598 (33.5)	180,792 (100.0)
전 체		327,785 (70.0)	140,541 (30.0)	468,326 (100.0)

자료: 법무부(2006).

두 번째로 한국 정부의 느슨한 단속이 불법체류자 증가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은 1997년 말에서 2000년 1월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출국을 중용하는 담화문이 6차례나 발표되었지만 그 사이에 이렇다 할 추가적인 행정조치나 단속실적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2003년에 고용허가제 실시를 결정하면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조치를 취한 적도 있었다. 이 같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는 계속되는 3D업종의 구인난과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외국인 노동자 지원 관련단체들의 거센 반대에 크게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⁴⁾.

3. 개발도상국 출신, 저숙련직, 젊은 남성층의 높은 비중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이 월등히 많은 성불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다(<표 2> 참조). 1990년대초 산업연수생제를 실시할 때 정부의 의도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제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부문은 유해한 작업조건에서 금속프레스기와 금속절단기를 작동하고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며 유독성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저숙련 3D직종과 영세한 기업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일과 작업조건으로 인해 외국 인력을 사용하려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덧붙여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제조업과 건설업 이외에 인력부족을 겪지 않는 산업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하는 것을 강력하게 제한하였다. 이에 비해 다른 인력수입 아시아 국가들의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남자보다 여자를 더 선호하는 직종인 가사 노동, 식당과 호텔직, 연예-유흥, 그리고 기타 개인서비스 산업에서

4) 1990년대 초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도입을 촉진시킨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2000년대에도 계속 되어 2003년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률은 6.2%를 기록하기도 했다(재정경제부, 2004).

<표 3> 주요 출신 국가별 외국인 노동자 수, 2005

(단위: 명, %)

국가	합법체류자	불법체류자	합
중국	조선족 96,180 (72.4)	36,699 (27.6)	132,879 (100.0)
	한족 37,587 (46.8)	42,678 (53.2)	80,265 (100.0)
필리핀	25,098 (65.4)	13,249 (34.6)	38,347 (100.0)
인도네시아	21,913 (79.9)	5,521 (20.1)	27,434 (100.0)
베트남	19,954 (64.8)	10,838 (35.2)	30,792 (100.0)
태국	19,573 (63.7)	11,146 (36.3)	30,719 (100.0)
방글라데시	8,141 (37.4)	13,605 (62.6)	21,746 (100.0)
우즈베키스탄	9,336 (59.6)	6,321 (40.4)	15,657 (100.0)
몽골	11,052 (51.6)	10,354 (48.4)	21,406 (100.0)
전 체	248,834 (62.3)	150,411 (37.7)	399,245 (100.0)

자료: 법무부(2006).

의 수요에 의해 주로 추진되어 남다여소의 한국과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 성비를 가지고 있다(Lim and Oishi, 1996; Wong, 1996).

외국인에게 허용된 대부분의 일자리가 육체적으로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는 소위 3D업종에 몰려 있는 만큼 취업과정에서는 아무래도 나이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향이 있다. 정부도 고용허가제 송출국가와 맺은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에 공식적으로 취업희망자의 나이를 18-40세로 제한해 의도적으로 젊은층의 취업만 허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중 70% 이상이 20-30대의 남성들로 이루어져 있다(석현호 외, 2003; 이정환, 2007).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영세하며,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주목적은 생산비를 절감하는 데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는 열악한 근로조건, 장시간 노동, 저임금, 낮은 지위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기피하는 대신 주로 저개발이나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고용기회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2005년의 경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85% 이상이 중국을 비롯한 다른 저개발 아시아국가 출신이다(<표 3> 참조).

산업연수생제 도입 초기부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값싼 인력자원에만 관심을 가졌지 이들의 장기체류나 영구거주는 전혀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의 장기 정착을 막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을 동반

하지 못하도록 단수 비자만을 허용하는 단성(single-sex) 노동이주정책을 펼쳐왔다. 아울러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도 지금까지 1회당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내 대부분의 남성 이주 노동자들은 독신이다.

4.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역할

한국내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논의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이다. 지금까지 있어 왔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수많은 문제들과 이에 대한 해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 수립에 있어 이들 외국인 노동자 지원 단체는 거의 빠짐없이 개입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쳐왔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와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원단체에 대한 분석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사회에 있어 외국인 노동자는 유입 초기부터 소수집단이었다. 낯선 이국땅에서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일자리는 한국인들이 잘 가지 않으려나 그래서 별 경쟁 없이 남겨진 비공식화된 저임의 3D업종이었다. 게다가 이들 외국인 노동자 과반수 이상은 불법체류자들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당히 소외된 취약계층에 속해 있었다. 더구나, 한국정부는 점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 및 취업에 대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사전 준비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몰려온 이후에도 적절한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지 못해 외국인 노동자의 지위를 계속적으로 불안정하고 불리하게 만들었다⁵⁾. 결국, 3D업종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위험한 작업환경, 정상적인 노동계약을 하기 힘든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외국인 노동자로 하여금 산업재해와 이에 따른 치료비 및 보상금 미지급, 임금체불, 작업장내 폭행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 가까이 있으면서 노동과 인권문제에 관계하고 있던 사회단체 및 개인, 그리고 보편적인 인권을 중요시하는 종교기관들이 이들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문제에 자연스럽게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는 19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급성장을 하였다. 1990년대 초까지 주로 수도권에만 머물렀던 외국인 노동자가 시간이 지나면서,

5) 예로서, 정부는 불법체류외국인 노동자가 4만여명이 넘는 1991년 말에서야 외국인 노동자에 관해 처음으로 법무부 훈령 '외국인산업기술연수사증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제정하여 외국인 단순노동자들이 산업연수라는 명목하에 편법으로나마 입국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도 1992년 말부터 시작하였으나 그 후 출국기간을 연장시키는 조치를 1994년 상반기까지 4번이나 반복하여 법에 대한 일관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외국인 산업연수생 실시와 더불어 1994년초부터 한 해에 많게는 2만 여 명이 전 제조업종과 전 지역에 배정되면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고 덩달아 이들의 지위와 처지에 따른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또 이들의 존재가 사회저변에 퍼져나감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의 수가 증가함은 물론 이들 단체의 종류, 규모, 활동도 보다 확대되어 나갔다. 한편, 외국인 노동자 단체의 활성화는 일반시민, 대중매체, 정부로 하여금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만들었으며, 역으로 이들의 관심은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다.

1997년말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언론, 일반시민, 사회단체에서 늘어나는 국내실업자문제에 그들의 관심과 지원을 집중시켜 나가자 상당수 외국인 노동자 관련단체들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해버리고는 국내실직자 및 노숙자 문제 쪽으로 활동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1999년부터 되살아나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더불어 소수집단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증대함에 따라 이들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숫자도 다시 크게 늘어났다⁶⁾. 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 이상의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들 단체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어 사안에 따라 집단적으로 행동하기도 한다⁷⁾.

Ⅲ.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의 평가

1. 주제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과정 변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지금까지의 학문적인 접근들도 시기적으로 주제를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존재가 한국사회에서 서서히 부각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도입과 노동력 활용이 갖는 경제적 효과 및 이들에 대한 정책 연구들(박영범, 1992; 설

6) 노무현대통령은 2003년 11월 국적회복을 위해 불법체류 중인 조선족들이 모여 농성중인 장소를 방문하여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표하기도 하였다.

7) 대표적으로 1995년에 결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2004년에 창립한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있다.

동훈 1992a, 1992b; 박래영, 1993; 송병준, 1993; 이해경, 1994)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급증하고 이들의 존재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곧바로 이들의 실태와 적응에 대한 조사들(박충환, 1994; 설동훈, 1994b; 송병준, 1994; 이육정, 1994; 강수돌, 1995; 김종일·이상철·이종구·설동훈, 1995a; 서울시정개발원, 1995; 유명기, 1995; 강수돌, 1996; 김경석, 1996;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 한현숙, 1996)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특히 1995년에 이르러서부터는 이전까지 한 해에 5편 내외이던 외국인 노동자 연구가 10편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고 주제도 정책분야(권주안·이번송·조준모, 1996;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한성수, 1996; 김재원, 1997; 나영선, 1997) 외에 복지(김미정, 1995; 유해근, 1997), 인권(김선주, 1995; 김종일·이상철·이종구·설동훈, 1995b; 함한희, 1995, 1997), 법적 지위(김선주, 1995; 김소영, 1995; 최홍엽, 1997), 관련 또는 지원단체(김종일 외, 1995b; 강현아, 1996; 성미영, 1997; 유해근, 1997) 등으로 보다 다양해졌다.

1997년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뿐만 아니라 학계의 관심도 크게 줄게 만들어 2000년대 초반까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 연구는 몇몇 학자들에 의해 새로운 방향으로 꾸준히 전개되어 나갔다.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과 일상생활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인 연구로서는 외환위기 발생 바로 이전의 송병준·백석현·유명기·함한희·설동훈·이번송·권주안(1997), 이 후의 이해경·정기선·강수돌·설동훈·석현호(1998), 설동훈(1999a), 석현호 외(2003)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송병준 외(1997)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생산성, 한국 사회문화 내에서의 갈등과 적응,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경 외(1998)의 연구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존 문헌과 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상황, 사회문화적 적응, 고용, 관리 및 정책, 사회적 자본, 관리제도와 법적 지위를, 설동훈(1999a)은 이전 10년간의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적응 및 귀환, 한국 사회의 대응과 정부정책을, 석현호 외(2003)는 구체적인 서베이 자료를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특성과 이주과정, 고용회사, 노사관계, 근로조건과 직장경험, 사회문화적 관계, 정신건강, 지원단체, 고용효과 등을 포함해서 일터와 삶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보다 경험적이고 세부적인 주제에 대한 분석연구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다룬 석현호(1998), 노사관계를 다룬 석현호·정기선·장준오(1998), 사기파해를

다른 설동훈(1998), 법적 지위를 다른 하경호·김영호(1998), 고용허가제를 다른 설동훈(1999), 사회적 연결망을 다른 박경태·설동훈·이상철(1999), 의료실태를 다른 오상우·조비룡·허봉렬·임강은·홍승권·최경만(2000), 한국인과의 혼인을 다른 조성원(2000), 공정성 인식을 다른 이정환(2001), 기대체류기간을 다른 이정환·석현호(2001), 일터의 공간적 분포를 다른 정연주(2001), 관리 방식을 다른 이해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2002), 인권을 다른 설동훈·최홍엽·한건수(2002) 등을 들 수 있다.

2003년 노무현정권의 등장과 함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상황이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늘어났고 고용허가제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크게 이루어졌으며 여기에 외국인 배우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외국인 전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했다. 덕분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다시 활기를 되찾게 되었다. 2004년 이후로 논문과 저서의 숫자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났고 특히 매년 정부 중앙부처 및 산하 기관과 연구소에서 10건 이상의 보고서가 출간되고 있다. 주제면에 있어서는 기존 연구들이 다루어 왔던 인력도입 및 고용정책(김희재, 2003; 설동훈, 2003a; 유길상·이규용·이해춘·조준모·노용진·김현구·박의경, 2004; 유길상·이정혜·이규용, 2004; 설동훈 2005a, 2006), 인권(설동훈, 2005b; 김철호·설동훈·홍승권, 2006), 지원단체(설동훈, 2002; 이정환, 2003; 설동훈 2003b, 2004), 사회적응(노충래, 2006)에 덧붙여 젠더(이해경, 2004; 이해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조직몰입(정기선, 2003a; 이정환·종효명, 2006), 거주공간(박배균·정건화, 2004; 장연진, 2006),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오창균·임순광, 2004; 정현숙, 2004; 이정환, 2005), 한국어교육(김정은, 2006), 건강(정기선, 2003b; 김철호 외, 2006; Lee and Sohn, 2006; 이정환, 2007), 여가(백정숙·이계희, 2006) 등으로 보다 확대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5년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양뿐만 아니라 관심영역 그리고 수준에 있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 연구는 주제와 내용면에 있어 몇 가지 한계들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이들 연구는 주제선정에 있어 거시적인 측면에 치중된 경향이 있다. 비록 최근 들어 연구주제가 미시적이고 보다 세분화된 영역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연구들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방식과 활용에 관련된 거시적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개인적 호기심이나 관심보다는 주로 정부나 기타 공공기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용역사업방식으로 주도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

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산출형태에 있어서도 학술적 논문에 비해 보고서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둘째, 연구결과의 적용범위가 외국인 노동자 일부에 한정되는 측면이 있다. 일부 정책관련 연구들을 제외한 상당수의 연구들은 인권침해나 임금체불과 같은 사회문제의 성격을 지닌 주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사회 내에서 소수집단으로 인권침해와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나 당위론적으로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으로 제기되는 폭행, 임금체불과 미지급, 산재 등등의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대상자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일부라고 할 수 있다(석현호 외, 2003).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의 일반 사회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들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 예를 들면 이주과정, 일터와 일상사회에서의 적응, 본국과 한국에서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재정, 공동체, 종교, 여가, 건강 등등에 관한 연구들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실태와 현황에 관한 기술적인 연구들의 비중이 높다. 보고서는 물론 학술적인 논문에서도 상당수가 설명적이라기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실상을 소개하는 기술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정부기관의 용역사업에 의해 주도된 것과 관련이 많다고 하겠다. 정책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 특정한 분야나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론적 차원에서 학문적으로 설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이 분야를 오랫동안 다룬 연구자층이 두텁지 않은 대신에 용역사업 증가로 인해 시류적으로 참가한 연구자들이 단기적이거나 일회성적인 연구에 몰리는 경향도 기술적인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 한 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2. 방법론

주제와 마찬가지로 연구방법도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과정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어 왔다.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정책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만큼 연구방법도 외국인력 도입과 활용에 관련된 기존의 국내외 문헌에 대한 조사(박영범, 1992; 설동훈, 1992a; 박래영, 1993; 설동훈, 1994a; 이혜경, 1994; 김소영, 1995; 박영범, 1995)가 주류를 이룬다. 문헌의

종류에 있어 정책과 법제 부분이 비교적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활용의 효과성에 관련된 연구일 경우에는 거시적인 수치 자료도 많이 사용되었다. 또 당시 외국인력 도입이 국내에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비교연구(박영범, 1992, 1995; 김소영, 1995)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1990년대 중반들어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또 이들과 관련된 문제들이 서서히 부각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과 관련된 고용기업과 지원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조사(설동훈, 1994b; 이욱정, 1994) 및 설문조사(강수돌, 1995; 김종일 외, 1995a;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방식에 기초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기존 자료에 바탕을 둔 이차 분석, 심층면접방식의 사례조사,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조사의 3가지 연구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해 오고 있다. 이들 가운데 대체적으로 정책적인 연구는 이차 분석, 실태와 현황에 관련된 연구는 사례조사와 서베이조사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는 다소 낯설고 유동적인 대상을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학자들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나름대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며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방법론상의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경험적이거나 양적인 자료보다는 이론적이거나 질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연구의 비중이 높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 관련 연구들이 정책적인 주제에 치중하고 또 외국인을 상대로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들이 사실에 대한 확인이나 설명보다는 추상적인 주장이나 논쟁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

둘째, 경험적인 조사에 바탕을 둔 연구들의 경우, 몇몇(석현호·정기선·장준오, 1998; 석현호 외, 2003)을 제외하고는 표본의 대표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다. 조사연구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표본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표성이 있는 표본의 추출을 위해서는 모집단 목록이 있어야 하는 데 외국인 노동자의 거주 또는 직장의 소재를 정확히 담고 있는 자료를 입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많은 조사연구는 조사의 편의를 위해 소개받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을 소개받아 조사하는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원단체에 가서 조사하는 편의적(convenient sampling) 내지는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또는 판단적 표집(judgmental sampling)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확률표집(nonprobability sampling)방식에 의한 표본은 대표

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모집단의 특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 중 지원단체에 오가는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5%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이들은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한국사회에서 어려움이나 문제를 겪은 비율이 높다(석현호 외, 2003).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의 절대 다수는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에 나타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거나 사회조사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이들 단체의 직원에게 조사를 의뢰해서 나온 결과는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편향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직접 조사하는 사례연구나 서베이연구의 경우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를 지니고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조사는 의사소통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더군다나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기간의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하며, 아울러 육체적 및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대부분 한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 비록 이들의 이주 역사가 20여년이 되었다고는 하나 제도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조선족을 제외하고는 한국어를 어느 정도 구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드물다. 따라서 이들을 직접 상대해서 설문지나 면접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한국어를 이해하거나 구사할 줄 아는 장기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때로 조사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자국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사용하기도 하나 이때 번역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정이나 역번역(back translation)을 시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조사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를 가져오고 동시에 부정확하고 왜곡된 자료를 산출함으로써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 역사가 장기화되고 규모도 커지면서 지난 15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되어 왔다. 아울러 주제도 더욱 다양해졌고 방법론도 보다 세련되어져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나름대로의 문제와 한계들을 지니고 있다⁸⁾. 따라서 이런 부족한 점들을 극복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

구를 학술적 및 실용적 차원에서 한 수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주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주취업자의 정착과 공동체의 발전은 대개 4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Boehning, 1984; Castle and Miller, 1998). 제1단계는 젊은 취업자의 일시적인 이주, 본국으로의 소득 송금, 고국을 계속해서 지향하는 성향이, 제2단계는 체류의 연장, 혈연 및 같은 출신지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 도움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사회적 연결망의 발전이, 제3단계는 가족 재결합, 장기 정착에 대한 의식의 성장, 이입지 사회에 대한 지향의 증가, 자신들의 제도(단체, 가게, 전문 직업 등)를 갖춘 민족공동체의 등장이, 제4단계는 이입국의 정부정책 및 인구에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시민권까지 포함한 법적인 지위를 획득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배제, 사회경제적인 주변화, 영구적인 소수민족집단의 형성으로 이끌 수 있는 영구 정착을 특징으로 한다. 한국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 역사가 20년에 이르고 그 수도 50만명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게토(ghetto)도 서울과 경인지역 일부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주취업자의 정착과 공동체 발전은 거의 4단계까지 진입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생겨난 다양한 현상들과 또 앞으로 생겨날 고급인력 유입, 다인종다문화사회, 탈민족주의, 이주관련 정책과 법 개정, 귀국 후 생활 등등의 현상에 주목하면서 연구주제를 보다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에 관련된 연구대상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역할은 한편으로 독립변수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동료 한국인 직원, 기업체, 지원단체, 일반 한국인의 인식과 태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종속변수일 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를 보다 역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들과 관련된 집단에 대한 연구도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동료 한국인 직원, 업체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이 3가지 대상을 동시에 조사해서 연계하거나 비교해야 한다.

셋째, 학술적이고 설명적인 연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외국 인력활용 정책에 따라 결정되고 또 이들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정부기관에 의해 주도되다보니 보고서와 기술적인

8) 이러한 문제와 한계에 대해 이 글의 저자들도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연구가 15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온 만큼 이제 이들에 대한 연구는 보다 이론에 기반을 둔 학술적이고 설명적인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덧붙여 연구의 차원도 거시-지향 뿐 아니라 미시-지향, 그리고 거시-미시 연계 지향의 연구들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일반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외국 인력이 도입되던 초창기에는 이들에 대한 정책이나 법률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했고 또 자민족중심주의와 혈통주의가 강한 사회문화로 인해 가난한 나라에서 와 한국인들이 꺼리는 3D업종에 종사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종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이들에 대한 연구의 상당 부분은 임금체불과 미지급, (성)폭행, 산재, 인권침해 등과 같은 문제적인 내용에 치중하여 전개되어 온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정책과 법은 상당히 개선되어 현재 이들에 대한 지위와 대우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또한 이들 중 다수는 외국인 노동자들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 생활에 만족하고 더 오래 일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아울러 한국인 관리자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이혜경 외, 2002; 석현호 외, 2003). 따라서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문제(problem) 중심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이주과정, 일터와 사회생활에서 전체 또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고 또 이들에게 해당되는 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베이조사인 경우 모집단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의 모든 구성원들을 담고 있는 목록이나 표집틀(sampling frame)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분포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잘 검토하면 이들의 모집단을 어느 정도 대표할 수 있는 표집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는 인구학적으로 중요한 변수인 국적, 체류자격(합법/불법), 성(조선족 제외)별로 일터나 거주지가 크게 다르거나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과 같은 외국인력 도입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배치표를 구해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확률표집방식을 사용하면 나름대로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할 수도 있다.

참고문헌

- 강수돌 (1995) 《외국인연수생 사용업체 실태 조사》 한국노동연구원.
- _____ (1996)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기업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의 비교적 관점에서》 한국노동연구원.
- 강현아 (1996)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국가의 외국인노동자 관리정책과 관련 단체의 대응” 《산업노동연구》 2(2): 159-196.
- 권주안·이변송·조준모 (1996) “외국인 노동력의 대체성 분석: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경제학 연구》 44(2): 135-158.
- 김경석 (1996) “국내 외국인 근로자 노동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 (1995)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주 (1995) “한국에서의 외국인노동자 인권문제” 《법조춘추》 .
- 김소영 (1995) 《외국인력관련법제 및 정책의 국제비교》 노동연구원.
- 김재원 (1997)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와 외국인 인력정책 방향” 《경제교육 연구》 3: 87-122.
- 김정은 (2006) “이주노동자의 한국어교육 현황과 교육자료 분석” 《이중언어학회》 30: 77-112.
- 김종일·이상철·이종구·설동훈 (1995a) “국제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국내 취업: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경제와 사회》 26(여름): 172-207.
- _____ (1995b)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지원운동” 《경제와 사회》 28 (겨울): 77-100.
- 김철호·설동훈·홍승권 (2006)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 건강권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학》 7(2): 93-129.
- 김희재 (2003) “한국과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현황 및 정책” 《사회조사연구》 18: 61-93.
- 나영선 (1997) 《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 노충래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서울 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박경태·설동훈·이상철 (1999) “국제 노동력 이동과 사회적 연결망: 경기도 마석의 필리핀인 노동자 집단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3(겨울): 819-849.
- 박래영 (1993)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 《노동경제논집》 16: 1-28.
- 박배균·정건화 (2004) “세계화와 ‘잊어버림’의 정치: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에 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0(4): 800-823.
- 박영범 (1992) 《외국인력 수입과 정책 방향: ILO협약과 국내 노동시장문제》 한국노사관계발전연구소.
- _____ (1995) 《비숙련 외국 인력의 활용과 산업기술 연수제도: 일본과 싱가포르의 외국인력정책의 경험과 시사》 중소기업연구원.
- 박충환 (1994) “한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문화접촉에 관한 연구: 작업장내 비형식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정숙·이계희 (2006) “이주 노동자의 여가제약요인과 여가행태” 《관광레저연구》 18(2): 243-259.
- 법무부 (해당연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서울의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
- 석현호 (1998) “외국인 취업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한국사회학》 32(가을): 679-701.
- 석현호·정기선·이정환·이혜경·강수돌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석현호·정기선·장준오 (1998) 《외국인 노동자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적응》 집문당.
- 설동훈 (1992a) “국제 노동력 이동과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 《한국의 지역 문제와 노동계급》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37: 231-325.
- _____ (1992b)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 『경제와 사회』 15(가을): 113-144.
- _____ (1994a) “국제 노동력 이동과 외국인의 한국내 취업” 《사회문화연구》 2: 62-99.
- _____ (1994b) “국내거주 이민노동자의 생활실태” 《포럼21》 10(여름): 72-95.
- _____ (1998) “중국 조선족 사기피해의 원인과 대책” 《피해자학연구》 6: 67-102.

- _____ (1999a)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 (1999b)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내용 및 실사 방안” 《노무관리》 148: 71-77.
- _____ (2002) “외국인노동자 지원 시민단체 10년간의 쟁점과 과제” 《시민사회》 6(봄): 34-46.
- _____ (2003a)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제도개혁, 2003년: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도” 《지역사회학》 5(1): 149-167.
- _____ (2003b)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운동, 1992-2002년” 김진균 편 《저항, 연대, 기억의 정치 2: 한국사회운동의 흐름과 지형》 문화과학사, 76-99.
- _____ (2004) “한국의 외국인 노동운동, 1993-2004년: 이주노동자의 저항의 기록” 최협·김성국·정근식·유명기 편 《한국의 소수자, 실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469-487.
- _____ (2005a) “일본과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비교” 《일본연구논총》 21(여름): 201-230.
- _____ (2005b) “외국인 노동자와 인권: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및 인간의 기본권의 상충요소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5(2): 39-77.
- _____ (2006)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정 규모 추정” 권태환·김두섭 편 《한국 인구의 성장과 다양성》 한양대학교 인구 및 고령사회 발전연구소.
- 설동훈·최홍엽·한진수 (2002) 《국내거주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 성미영 (1997)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단체의 현황 및 역할.”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병준 (1993)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 방안: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_____ (1994) 《외국인력 문제의 실태와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 송병준·백석현·유명기·함한희·설동훈·이변송·권주안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오상우·조비룡·허봉렬·임강은·홍승권·최경만 (2000) “한국 일부 지역의 외국인 노동자의 의료이용 실태와 상병 사망 양상의 조사” 《가정의학지》 21(8): 1053-1064.
- 오창균·임순광 (2004) 《지역 외국인노동자 실태와 네트워크분석》 대구경북연구원.
- 유길상·이규용·이해춘·조준모·노용진·김현구·박의경 (2004) 《저숙련 외

- 국인력 노동시장 분석》노동연구원.
- 유길상·이정혜·이규용 (2004) 《외국인력제도의 국제비교》 노동연구원.
- 유명기 (1995) “재한 외국인 노동자의 문화적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인류학》 27: 145-181.
- 유해근 (1997)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교회의 역할”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옥정 (1994)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의 생활 실태와 적응 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환 (2001)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공정성인식” 《한국인구학》 24(2): 179-205.
- _____ (2003) “외국인 노동자 공동체와 관련NGO”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353-398.
- _____ (2005) “외국인 노동자의 모국인 및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연구》 27(3): 75-90.
- _____ (2006) “외국인 노동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에이즈 감염성” 국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주최 국민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 “이주 외국인의 빛과 그림자: 단일 민족에서 다문화 사회로” 발표 논문.
- _____ (2007) 《2006년 이주노동자 에이즈와 성행태 조사연구보고서》 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이정환·석현호 (2001) “외국인노동자의 기대체류기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35(4): 129-57.
- 이정환·종효명 (2006) “중국인 노동자의 조직몰입: 국내와 중국내 한국기업 취업자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0(2): 603-629.
- 이혜경 (1994)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 89-113.
- _____ (2004) “한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27: 121-153.
- 이혜경·정기선·유명기·김민정 (2006) “이주의 여성화와 초국가적 가족: 조선족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 258-298.
- 이혜경·정기선·강수돌·설동훈·석현호 (1998) 《한국사회와 외국인 노동자 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 이혜경·정기선·이정환·설동훈 (2002) “국내외 한국기업의 외국인력 관리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식 관리방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6(3): 47-77.
- 장연진 (2006)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업지역의 성장과 민족 네트워크

- 크: 안산시 원곡동을 사례로》《한국지역지리학회지》12(5): 523-539.
- 정기선 (2003a) “외국인 노동자의 작업장 적응,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_____ (2003b) “외국인 노동자의 정신건강”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지식마당.
- 재정경제부 (2004)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 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4(1): 27-42.
- 정현숙 (2004)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험담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12(3): 27-45.
- 조성원 (2000) “외국인 노동자와 노동계층 한국여성의 결혼사례를 통해 본 새로운 마이너리티의 형성 및 재생산”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1996) 《외국인산업기술연수백서》.
- 최홍엽 (1997)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하경호·김영호 (1998)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적, 노동법적, 사회보장법적 지위”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1998년 춘계학술발표회 발표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한국경영자총협회 (1996)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개선방안 연구》.
- 한성수 (1996) “외국인근로자 수입의 경제적 효과분석”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현숙 (1996) “한국체류 조선족 노동자의 문화갈등 및 대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한희 (1995)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과 계급문제” 《한국문화인류학》28: 199-221.
- _____ (1997) “외국인 노동자의 갈등과 적응” 《외국인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 Boehning, W. R (1984) *Studies in International Labour Migrat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 Castle, S. and M. J. Miller (1998) *The Age of Migration* London: Macmillan Press Ltd.
- Lee, Jungwhan and Aeri Sohn (2006) “Korean HIV/AIDS Policy on International Migrants: Comparing with OECD Countries” *Journal of*

Korean Societies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3(5): 47-73.

Lim, L. L. and N. Oishi (1996)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of Asian Women"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5(1): 85-116.

Wong, Diana (1996) "Foreign Domestic Workers in Singapore"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5(1): 117-138.

Migrant Characteristics of Foreign Workers and Research Trends in Korea

Jungwhan Lee · Sungyong Le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udie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at a level of meta-analysis focusing on their subjects and methodology. Over the last 15 years, studies of foreign workers have diversified subjects and refined methodology reflecting major characteristics of migration patterns including a rapid increase in number, large populations of illegal sojourners, a majority low-skilled young male workers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and an active role of migrant-support NGOs. Nevertheless, the studies have shown problems such as a higher ratio of macroscopic discussions, overemphasis on social problematic issues and a tendency towards descriptive analysis. Methodologically, they have also revealed an inactive use of empirical and quantitative data, lack of representativeness of sample and disregard of an importance of language in the study of foreigners.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es to enhance researches of foreign workers in Korea.

Key Words: foreign workers, studies of foreign workers, migrant characteristics, subjects, methodology, Korea